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유보와 시사점

□ 미 재무부는 반기 리포트를 통해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위안화의 실질 환율이 빠르게 절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함.

- 또한 재무부는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, 주식시장과 실물 시장에서의 버블 방지, 내수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유익이며 따라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양국 간 대립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.
-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은 환율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, 작년 6월 중국이 위안화 변동성을 확대한 이후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3.7%가량 절상되었음.
-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 유보는 중국의 위안화 변동성 확대, 공화당의 하원 장악,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 등으로 위안화 저평가 문제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함.
-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위안화의 수준이 ‘상당히’ 저평가된 상태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진전된 노력을 촉구함.

□ 한편 중국의 환율정책을 비판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은 재무부의 발표직후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재상정하기로 함.

- 센더스 레빈 민주당 하원의원은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위안화는 15%~25% 저평가된 상태이며 이는 미국의 수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, 동 법안에 공화당의원도 다수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함.
- 지난해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상정되었으나 하원에서는 통과된 반면 상원에서는 통과에 실패한 바 있음.
-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동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(Washington Post 등, 2/5)